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방송기술대상 시상식 개최

글.  
이진범 방송과기술 기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KOBETA, 이하 연합회)의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방송기술대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14일 목동 방송회관 2층 코바코 홀에서 개최되었다. 1987년에 창립되어 국내 방송기술의 발전과 방송기술인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노력한지 올해로 30년이 되었다. 연합회는 KOBA와 월간 방송과기술, 방송기술저널 등을 비롯해 해외전시 참관 지원, 방송기술관련 학술지 편찬 및 토론회 개최 등 연합회원 및 방송기술인을 위한 지원을 해왔다. 이날 행사는 이러한 연합회의 창립을 축하하는 기념식과 동시에 올 한해 방송기술 발전을 위해 힘쓴 회원에게 주어지는 방송기술대상 시상식이 동시 개최

되었다. 250여 명의 관련 기관 및 단체, 연합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종석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6.10 민주항쟁의 시대적 여망에 부응하여 창립한 한국기술인연합회는 방송 민주화와 방송기술 창달을 위해 끊임없이 앞장서 오면서, 이제는 국가 미디어 발전과 방송기술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주체로 성장해왔다.”며 연합회의 창립과 성장에 대해 역대 회장단과 집행부를 비롯한 방송기술인 선후배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고, “지금까지의 경험과 하나 됨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며, 향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국가 방송·미디어 경쟁력을 이끌어가는 주체 또한 결국은 우리 방송기술인이 될 것이



축사 중인 김홍련 전 연합회장



KOBETA 30주년 기념 동영상 시청



30주년 기념 케익 커팅식



수상을 축하해주는 연합회원 및 참석자들

라 확신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연합회를 중심으로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홍련 제5, 6대 연합회장,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최성주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의 축사가 진행되었다. 김홍련 전 연합회장은 “90년대 방송의 독립, 2000년대 디지털 전환으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던 연합회 활동에 경의를 표하고, 현 연합회장과 집행부 분들에게 앞으로도 큰 활약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음 순서로 진행된 ‘KOBETA 30주년 기념 동영상’은 지난 30

년간 연합회의 시작과 발자취를 알기 쉽게 소개하였으며, 연합회가 어떠한 일을 하며, 어떤 성과를 이루어 내는지 10분의 동영상을 통해 행사 참석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연합회 동영상 시청 후 30주년 기념 케익 커팅식이 이어졌고, 2017년 올해의 방송기술대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대상에는 MBC 강승호 수상자가 선정되었고, 수상소감을 통해 “MBC 파업의 순간에서 소식을 알게 되어 놀랐지만 많은 선후배의 도움과 노력이 있었기에 상을 받게 된 것 같다.”며 수상의 기쁨을 나누었다.



수상 중인 KFN 김전기 수상자



수상 소감 중인 대상의 강승호 수상자

## 2017 방송기술대상 수상자 명단

|       | 수상자(부서)                                         | 부상                  |
|-------|-------------------------------------------------|---------------------|
| 대 상   | MBC 강승호                                         | NAB 2018 참관특전 / 상장  |
| 최우수상  | EBS 김동신·민병갑, KBS 수신기술운영부, SBS 신현범               | CCBN 2018 참관특전 / 상장 |
| 우 수 상 | KBS 선택진, CBS 허규진, KBS 양기선, YTN 안용고, 아리랑국제방송 최용태 | 상장 / 상금 / 소정의 상품    |
| 장 려 상 | KBS 손영택, OBS 하정호, MBC 김종호, KFN 김전기              |                     |
| 특 별 상 | tbs 박세준                                         |                     |

## 2017 방송기술대상 수상소감

## 대상 / MBC 강승호

UHD 방송 녹화 및 재생·편집에 사용되는 핵심 기능을 개발하여  
세계 최초 UHD 제작 부조 구축 및 UHD 장비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



파업 중에 수상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 한켠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한 공로로 상을 받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방송기술인으로 일해 온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일할 수 있었다는 것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방송을 만들어 온, 내가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신 선배님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왜 지금 일할 수 없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픈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다행히 MBC는 파업을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하게 되었지만 KBS는 아직 파업 중에 있습니다. 이 글이 방송과기술에 게재될 즈음엔 KBS도

정상화를 위한 한 걸음이 시작되었길 바랍니다.

MBC 기술연구소에서는 2015년부터 eXerverUHD를 개발하였습니다. 첫해에는 간단한 녹화와 재생을 할 수 있는 프로토 타입으로 기능은 많지 않았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코덱을 사용해야 할지 신호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해야 할 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참조할 만한 상용서버도 없었고 시장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기준이 없었습니다. 사용자들은 업계의 흐름이 어떤지 살피고 업계에서는 사용자들이 어떤 인터페이스를 선호하는지 살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코덱은 MPEG2-I와 ProRes를 지원하고 신호 인터페이스는 12G/IP 논쟁을 잠시 접어두고 Quad-3G(QSD)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현업에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XAVC를 지원하였고 비디오보드 공급업체인 Matrox 사와 협의를 통해 12G 인터페이스를 가능한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부조에서 사용하는 동시 녹화 시스템과 전송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 녹화의 정확성을 위해 타임코드를 이용한 동시 녹화를 적용하였고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녹화를 제어하는 마스터 시스템에 멀티 라이브윈도우 화면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더욱 커진 녹화파일을 빠르게 전송하기 위해 10G 네트워크카드를 이용한 전송속도 테스트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드디어 UHD 부조를 구축하고 실제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5월부터 드라마 제작을 위해 일주일에 2번 10시간가량 5채널 동시 녹화를 시작하였고, 개발실에서 많은 테스트를 하였지만 역시 현장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녹화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운영자가 수고를 해줘야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빠른 속도로 문제를 해결해서 6월 이후부터는 큰 문제 없이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eXerverUHD는 시작되었습니다. eXerverUHD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곧 아카이브, 뉴스시스템, 중계차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면 많은 개선해야 할 점들이 생길 것입니다. 또 막 시작된 UHD는 HDR, BT2020, IP 인터페이스 등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eXerverUHD는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하며 또 한 번 진화할 것입니다.

eXerverUHD는 많은 분들의 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부터 eXerverHD를 개발해오신 구진원 부장님, 노민철 차장님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노고와 열정이 없었다면 현재의 eXerverUHD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eXerverCut과 Transfer를 담당하고 팀의 굵은일을 도맡아 하는 곽재철 씨, 현재는 다른 팀/부서에 있지만 Player를 개발한 이현주 씨, 주인공 씨 감사드립니다. eXerverUHD는 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하였지만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eXerverUHD를 아껴주시는 현업에 계신 사용자분들 덕분입니다. 작년부터 UHD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며 eXerverUHD 도입을 위해 애써주신 이용주 차장님, 강동석 차장님, 김성곤 차장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시스템을 잘 사용해주시는 김규동 부장님, 윤태희 씨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을 주신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모든 구성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최우수상/ EBS 김동신·민병갑

### 라디오 제작·송출 전반을 기획하고 개발하여 신규 통합 사옥에 안정적인 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공헌



EBS 김동신

방송기술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주어지는 '방송기술대상'의 취지를 생각할 때 과분하긴 하지만 기술인으로서 이 수상이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혼자서 한 일이 아닌데 대표로 상을 받게 되어 함께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만든 결과물은 파일 기반 라디오 제작 송출시스템입니다. EBS가 2004년 8월 호주 ABC에서 개발한 디지털 오디오파일 시스템을 도입하여 오픈 릴 시스템을 폐지하고 디지털 파일 기반 제작·송출 시스템으로 전환한 이후 13년 만에 자체적인 기술로 2세대 오디오파일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능적인 면과 안정성면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2014년 시험운용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제작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에 송출 시스템이 완성되어 일산 EBS 사옥에 신규 제작·송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작과 송출에 투입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많은 부담감이 있었지만 이제 안도감과 함께 보람이 느껴집니다. 저희가 처음 개발에 착수할 때 아낌없이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주셨던 기술인연합회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저희 또한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저희 문을 활짝 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EBS 민병갑

먼저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 감사드립니다. 이 상은 E.motion이라는 라디오 제작·송출 시스템을 개발하고 완전하게 운영하게 됨으로써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시작은 같이 상을 받은 김동신 선배께서 제안해 주셨고, 저는 선배들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업무를 잘 수행해왔을 뿐인데 이렇게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와 직·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신 분들이 많은데 프로젝트 실무자라는 이유로 상을 받는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 상은 EBS 기술인협회 모두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을 계기로 한 층 더 성장하고 방송기술인의 미래를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우수상 / KBS 수신기술운영부

- 수도권 17개 단지 공동주택 약 1만1천 여 세대의 UHD 수신 시설을 구축
- 난시청 해소를 위한 시설 설치를 주도하여 방송의 공적 책무 구현에 크게 기여

|



먼저 한국방송기술연합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우수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KBS 수신기술운영부는 시청자의 무료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지상파 방송의 수신환경 개선과 난시청 해소 사업 등 시청자 권익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산간, 벽·오지 지역에 거주하시는 방송·문화 소외계층이 많이 분포해 있으므로 이러한 분들이 깨끗한 지상파TV 시청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소규모 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2008년 동일채널 소출력중계기를 개발, 2010년~2016년까지 중계기 452개소를 구축하여 약 139,000세대의 지상파 난시청 해소를 소외지역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지상파 TV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올해에도 15개소에 대하여 소출력 중계기 구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7년 5월 31일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TV 본방송 실시에 따라 수도권 공동주택 17개 단지(11,179세대)에서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신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UHD 방송 수신절벽 해소 및 직접수신을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BS에서는 관련 업무를 확대 실시하여 시청자의 무료 보편적 시청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방송기술연합회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우수상 / KBS 선택진

- 중계차 기술감독으로서 대형 스포츠 프로그램 국제 신호를 제작하는 등 기획 단계부터 프로그램의 성공적 제작에 이바지

|



먼저 한국방송기술연합회 창립 30주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귀한 상을 부족함 저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방송국에 들어온 해가 1987년이라 저 또한 방송생활 30년이 되었습니다.

옛그제 뭇 모르고 방송국에 들어와 용어도 낯설은 방송기술이란 업무를 맡은 지도 벌써 그만큼 지났더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작업무 중에서도 업무 스펙트럼이 꽤 넓은(?) 중계라는 부서가 저에게 있어서 현장제작기술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많은 경험을 통하여 저를 성장케 하였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생활 30년 중 중계제작 업무에 25년간 몸담으면서

수많은 역사의 현장에 중계라는 이름으로 참여하고 위험하고 힘든 일들을 열정하나로 형제와 다름없는 동료들과 멋지게 해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방송환경이 더 크고 다양한 변화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술인 스스로도 시대의 변화를 읽고 적응해야 하겠지만 특히 연합회가 앞장서서 그 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방송기술인들의 든든한 울타리와 힘이 되어주길 기대하고 또한 새로운 정부가 세

워진 만큼 앞으로의 미래방송30년, 아니 더 먼 미래까지 기술이 방송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보이길 기대합니다.  
거듭 뜻깊은 상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수상 / 경남CBS 허규진

### IP 기반 라디오방송 시설 구축 및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송 환경을 조성하여 방송기술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데 공헌



CBS에 입사하여 방송기술인으로 보낸 시간이 벌써 20년이 다 되어간다. 젊은 혈기에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기술인이 되겠다는 의지로 열심히 앞만 보고 지내온 시간들... 언제부터인가 주변을 돌아보니 우물 안 개구리 마냥 보고 있는 것이 전부라는 고정관념에 빠르게 변하는 신기술에 점점 뒤처져있는 내 모습을 보고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

방송기술이 성격상 높은 퀄리티에 안정성을 중요시하다 보니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방송 사고라는 변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방송기술인의 운명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기술의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혹여나 사고로 연결될까하는 우려가 생기는 것도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다. 방송기술 장비 역시 전통적인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세대교체를 시작했고, 디지털 장비에서도 다양한 스타일로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장비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 더군다나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방송기술인은 방송장비의 한 부분과 같이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단순 관리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 수리는 엄두도 못 낸다. 그저 구입처에 A/S를 요청하고, 예비 장비나 대체 장비로 교체하는 것이 고작 할 수 있는 전부이다. 슬픈 현실이지만... 현실은 현실이다.

디지털 시대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의 고정관념은 잠시 접어놓고, 어떤 신기술이 미래의 방송장비 시장을 움직일 것인지 고민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제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경영기반이 취약한 지역 방송사에서는 더 절실한 현실이 아닐는지.

## 우수상 / YTN 안용고

### 네트워크 및 보안 담당자로서 침입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방송 제작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함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고 버리기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

낮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나태주의 "11월" 중 한 구절입니다.

벌써 2017년 한 해의 끝자락인 11월입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30주년이기도 한 뜻깊은 자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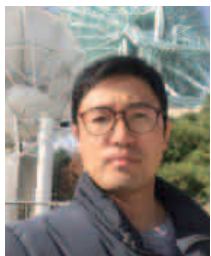
우수상을 받게 되어 정말 가슴 벅차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YTN 방송기술인협회원을 대표로 이 상을 받아도 되는지 부끄럽지만, 한편으로 협회원에게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내심 뿌듯하기도 합니다.

지난 18년의 재직기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 때로는 힘들고 실패에 좌절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그때마다 항상 기쁨은 배가되고 슬픔은 나누어주신 선후배,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신 이분들께 우선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제가 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해주신 YTN 기술인협회장과 YTN 기술국장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와 아이들(1호, 2호, 3호)에게 사랑한다고 전합니다.

기쁘고 벅차오르는 마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 항상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도록 다짐합니다. 제게 이 상은 그 다짐을 잊지 않는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우수상 / 아리랑국제방송 최용태

#### 방송시스템 기획 및 운영 분야에서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으로 방송시스템 기획 및 운영 분야에 이바지



대한민국 방송기술 발전과 방송기술인 간의 기술 정보 교류에 힘써 온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0년이라는 오랜 협회의 역사가 말하듯 훌륭하시고 존경받는 선배님들도 많으신데 개인적으로 이런 상을 받게 되어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 회원사 협회원들은 공영방송 정상화와 언론개혁을 위한 투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걱정 또한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아리랑국제방송 또한 예산삭감, 기금 고갈로 대규모 비정규직 해고문제와 재정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에 따른 대내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오래 지속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협회원사의 모든 걱정과 문제들이 해소되어 내년에 개최되는 연합회 행사에서는 모든 선후배 협회원들과 크게 웃으면서 막걸리 한잔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해 봅니다. 힘내십시오!

### 장려상 / KBS 손영택

#### 중계, 보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수행 능력과 안정적인 음향시스템 구축에 기여



훌륭한 많은 선·후배가 계시는데 이러한 상을 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돌이켜 보면 입사해서 좋은 선배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고, 불편한 것과 좀 더 나은 업무를 위해 항상 변화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이 이러한 영광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방송기술인은 빠르게 변하는 기술과 환경을 받아들여야 하고, 어디서든지 새로운 시스템과 장비에 숙달하여야 최상의 질로 방송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일입니다. 현장에서는 항상 앞장서서 일하지만 방송

이란 제품으로 공중에 뿌려지면 뒤편에 남아 있는 방송기술인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끝으로 저를 지금까지 있게 만들어준 선·후배 동료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장려상 / OBS 하정호

- 중계 및 제작 부조의 기술 감독으로서 방송 중계 및 제작 전반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운영·관리
- 후배 양성에 공헌하는 등 방송기술인의 기반 확대에 기여

|



2017년이 가기 전 의미 있는 상을 주신 각 방송사 협회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미디어에 열악해져 가는 방송현실이지만 그래도 방송현장에서 함께 하는 선, 후배들과 이 상의 영광을 함께하겠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을 잃고 어찌 보면 아등바등 살아가는 오십 대에 받은 상은 나에게 방송 생활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술 마시면 이따금 농담 삼아 “다시 태어나면 방송장이는 절대로 안 한다.” 했는데 요즘은 한 번 정도는 다시 태어나서 다시 해도 괜찮겠구나 하며 열정을 호주머니 깊은 곳에

서 꺼내서 출근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연합회원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올해 마무리하시고 2018 무술년에는 더 큰 소망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 장려상 / MBC 김종호

- 통합 데이터 방송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지상파 위치 기반 서비스 정착에 기여
- 재난과 안전을 위한 방송 표준 및 기술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와 공익 향상에 공헌

|



MBC에 입사한지 만 10년이 되는 해에 연합회로부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작기술국 종합편집부를 거쳐 기술연구소와 기술정보사업팀에서 업무를 수행했던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처음 입사했을 때보다 지상파 방송의 환경은 점점 더 척박해지지만 했던 것 같습니다. 해마다 황폐화가 심화되는 생태계 속에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고 방송 기반 정보서비스를 매년 새롭게 런칭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저희 팀원들에게 연합회에서 특별히 격려의 의미로 수여하는 상일

것임에도, 저 혼자 이 상을 받게 되어 팀원 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면을 통해 저희 MBC 기술정보사업팀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덧붙여서 여러 해에 걸쳐 어렵기만 했던 MBC의 대내외적 상황들이 2018년부터는 보다 희망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분 좋은 기대와 함께, 저 역시도 내년에 더욱 훌륭한 성과로써 지상파 방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에도 한국방송기술인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장려상 / KFN 김전기

- 채널 ID·시각 고지 음악을 자체 제작함으로써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 확보
- TV 녹음실 제작 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먼저 곁에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국군방송 협회장님과 회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려상'이라는 귀한 상을 주신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국군방송(KFN : Korean Forces Network)'으로 더 잘 알려진 국방홍보원은 국방일보, 국방TV, 국방FM, 국방누리(SNS) 4개의 미디어를 운영하며 군과 국민을 연결하고 소통하는 국내 유일의 국방안보 전문 미디어 기관입니다. 올해 4월 국방FM 라디오는 봄 개편을 맞아 '국방'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친구' 같이 편안한 이미지로 청취자에게 한발 더 다가가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많은 노력 중의

하나가 바로 국방FM 채널ID 음악과 시각고지 음악을 새롭게 만들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내부 협의 과정에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제작기술로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라는 의견이 나왔고, 그 프로젝트가 컴퓨터음악의 취미를 가진 제게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채널ID와 시각고지 음악은 다른 음악과 달리 짧은 시간 동안에 최대한 큰 각인효과가 필요했기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시각고지는 국방FM의 정체성을 담아 '당신이 애국자가 되는 라디오'라는 슬로건 아래 군가를 모티브로 마칭밴드, 피아노, 국악기, 비트박스까지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채널ID는 발라드에서 EDM까지 다양한 장르로 만들어졌습니다. CCM 가수인 '조찬미'씨가 메인 보컬을 맡아주어 하루 만에 5곡을 시원스럽게 모두 불러주었습니다.(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작년 12월 초에 작업을 시작해서 올해 3월, 마침내 채널ID 음악 5곡, 시각고지 음악 6곡으로 총 11곡을 완성했습니다.

국방TV 녹음실 본연의 스케줄 이외 시간에 작사, 작곡, 녹음, MIDI프로그래밍, 믹싱, 마스터링까지의 전 과정 모두를 작업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2017년 4월 국방FM 봄 개편에 맞춰 첫 전파를 타게 되었습니다. 지면상으로 들려드릴 수가 없어 무척 아쉽지만, 국방FM(수도권 96.7MHz, 국방FM앱(스마트폰), 별사탕(PC))을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996년 처음으로 386컴퓨터 'Adlib' 사운드카드에 내장된 야마하 FM칩 사운드를 듣고 신세계에 빠진 초등학교 시절로부터 용돈을 모아 구입했던 국산 '옥소리' 사운드카드 내장음원을 듣고 감탄하던 고교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이십여 년이 지난 지금은 그 옛날 부러움의 눈길로만 바라보던 Korg M1 신시사이저, 아니 감히 만져볼 엄두도 못 낸 컴프, 리미터 같은 아웃보드 기어들을 이제 소프트웨어로 만끽하며 녹음실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저에게 전문적 음악코치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제 아내 피아니스트 안충선 씨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방송기술인 여러분, 예측을 뛰어넘는 급변하는 방송기술 전장 속에서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한해 마무리 잘 하십시오! 국군방송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품질 방송 서비스를 위한 제작·송출 시스템과 방송사 특성에 맞는  
네트워크 워크플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방송 환경 선진화에 이바지



2017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연합회에서 뜻하지 않게 이런 큰 상을 주셔서 매우 기쁩니다. 이 상은 저 만의 것이 아니라 사업에 참여했던 모든 분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전사업에 힘써주셨던 교통방송의 선·후배 여러분, 그리고 업체관계자들에게 이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교통방송은 2016년 7월, 중구 예장동에서 마포구 상암동으로 새 동지를 틀었습니다. 20년 동안 말썽 많았고 정들었던 장비들이 불용되고 건물이 비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했지만 사원 모두의 마음속에 새로운 공간을 체계적으로 잘 꾸며서 보다 나은 방송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청사는 부조와 주조 그리고 제작에 관련된 시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되어 NPS와 보도정보를 매개로 효율적이고 보다 높은 품질의 방송을 송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최적의 방송품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교통방송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 하겠습니다.

방송기술인 여러분, 2018년 새해에는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KOBETA since 1987